



‘고객감동, 통해 지속성장’

세 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소비가 그 생산을 넘어서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 쌀값 파동에도 주식인 쌀만은 요동이 없다. 자금의 중요성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먼 미래를 유인해내는 큰 안목을 지닌 사람. 이번호에는 지난 2000년 농협가족이 된 (주)영일케미컬 姜聲國 사장(63)을 만나 취임 한 달간의 소회와 나름의 경영철학을 들어보았다.

기골장대형의 투사 이미지를 먼저 갖게 해준 姜사장에게 여념이 없었을 한 달간의 소회를 조심스레 물었다. “기업 생리상 다소 생소하고 분석이 쉽지 않다”면서도 “소중한 ‘먹거리의 약(藥)’을 보급하는 회사인 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뗀다. 경북 영주 태생으로 어릴적부터 농기업의 경영주를 꿈꿔왔던 그는 평생을 농민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며 삶을 영위

해 왔으니 이제는 소망을 이루었을 법도 하지만 그의 진보는 쉬 멈추지 않을 듯싶다.

국내 농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오래전부터 곡물가격 상승 등 식량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으며 국제적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는 姜사장에겐 비전을 물었다. “세계적으로 농사지어 잘사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여건이 어려울 뿐이다. 먹을거리를 만드는 산업이므로 머지않아 희망의 서곡이 울려 퍼져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흔히들 노사관계를 대립관계로 이해하지만, 한배를 타고 있는 하나라고 말하는 姜사장에게 농협 자회사로 승선한 이후 고성장의 배경을 조심스레 묻자 “취임 이전의 성과”라면서도 “농민이 주인인 농협과 일가족이 된 점, 농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앙회의 노력,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근노골(勞筋勞骨)

해준 임직원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수농약의 저가 보급 및 농협의 방제처방사, 보직공모자 등과 함께 농업현장 위주의 기술보급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향을 잡았다.

친환경농업 시대의 작물보호제 비전에 대해 姜사장은 "고객 없는 회사가 있을 수 없듯 '고객감동 실현 만이 능사'라고 전제하고는 '국내외 흐름에 역행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대세에 동의한 뒤 "다만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친환경 농업이 원래 목적인 생산성과 경제성을 배제하고, 마치 농약만 아니면 모두가 친환경이란 인식의 흐름은 옳지 않으며 또한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의 무분별한 남용과 환경보전적 측면만 부각된 농업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까지도 농사일에 직접 관계하며 일선 농업인과 호흡해 왔다는 姜사장에게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신해소 방안에 대해 물었다. "과거 농약에 대한 선입견을 놓으려 하지 않는 소비자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진단하고는 "관행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 저독성 농약으로의 빠른 변화, 인체에의 무해함 등 일련의 변화가 작지 않음을 알려 국민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며 과거 약용작물전국협의회회장 시절의 한약재 잔류검사에 대한 일화도 소개해 주었다.

끝으로 고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영일케미컬의 고품질 농약 보급을 위한 일정도 물었다. "최근 농업환경이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FTA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농업관련 기업으로서 그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의무와 사명감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영일케미컬은 고품질 농약을 보급하기 위해 원제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우수 원제의 지속적인 공급에 힘쓸 것이며, 사용이 편리한 제형과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저가인 고품질 농약을 공급, 농업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를 담당하는 산업인만큼 희망이 있다는 姜성국 사장. 농어촌의 애환이 깃든 '고향무정'이 애창곡이라는 그는 진정 또다른 농업인이다.

평소 등산을 하며 건강관리를 해 왔다는 姜사장에게 말미를 빌어 근황을 묻자 "요즈음은 떠밀려 골프를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도무지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실소를 머금는다. 애창곡을 묻자 손사래를 치면서도 가끔 기회가 주어지면 농어촌의 애환이 고스란히 베어있는 '고향무정'을 부르기도 한단다. 농업인 출신 CEO의 좌우명도 궁금했다. 그랬더니 '하면된다'라고 단답을 내놓는다. 어렸을 적 그렇게 외우고도 지금은 잊혀진 바로 그 명언이었다.

짧지만 무엇인가를 하기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원동력이 되는 문구로 이보다 더 긴 여운을 주는 명언이 또 있을까? Y